



매일 모두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려요.



“나날이 당신을 찬미하고 영영세세 당신 이름 찬양합니다.”  
(시편 145(144),2)



하느님을 찬미하는 기도가 성경에는 많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에 처할때 도와주신 하느님께 감사 드렸어요. 이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느님의 큰 사랑을 더욱더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로 하늘나라를 설명하세요. 주인은 하루 종일 일꾼들을 일하게 했는데, 처음 시작한 일꾼들은 아침부터 일했고, 다른 일꾼들은 오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일꾼들은 몇 시간만 일했어요. 그런데 주인은 모든 일꾼들에게 같은 임금을 주기로 약속했어요.



그날 저녁, 일을 마치고 모든 일꾼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더 많이 일을 한 일꾼들이 불평하는 소리에 주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왜 부러워하죠? 나는 여러분에게 약속한 돈을 주었고, 가장 늦게 온 일꾼에게도 똑같이 줄 수 있어요. 하느님은 당신의 모든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하세요.’



마다가스카르의 모리스가 나누는 이야기예요. 학교에서 저는 제 물건을 친구들과 나누는 것을 좋아해요. 반면에 필리페는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도 남에게 무언가를 나누는 적이 없어요. 어느 날, 내가 칠판에 글을 쓰다가 분필을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분필을 많이 갖고있는 필리페에게 하나만 달라고 부탁했지만, 필리페는 내게 분필을 주지 않았어요. 저는 필리페에게 몹시 화가 났었어요. 다음날 쉬는시간에 저는 엄마가 주신 용돈으로 맛있는 간식을 샀어요. 그때 필리페가 제게 와서 한 조각만 달라고 했어요.



나는 속으로 “안돼!”라고 말하며 간식을 계속 먹었어요. 하지만 필리페는 저를 계속 기다렸어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필리페처럼 아직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까지 모두 사랑하신 다는 것을 기억했어요. 저도 그런 예수님 처럼 살고싶었기 때문에 필리페에게 큰 조각을 나눠주었어요. 그날 이후, 필리페도 자신의 물건을 저와 나누기 시작했어요.